

부산대학교 53대 총학생회

제14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

발신: 총학생회장
 수신: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일시: 2020년 4월 27일(화) 오후 19시
 장소: ZOOM회의
 기록물 책임자: 총학생회장 김태경

I. 출결 점검(가나다 순)

시간	총학생회 장		부총학생회장		간호대		경영대		경통대 (비)		공과대		나노대		동아리 연합회		사범대		사회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19:00	o		o		x	x	o	x	o	o	x		o	x	o	x	o	o	o	x		
시간	생자대		생활대		스포츠 과학부		약학대		예술대		인문대 (비)		자연대 (비)		정보의 생명공 학대		의과대		Pre 한의전		Pre 치의전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공석	정	부	정	부	정	부	
19:00	x	지각	x	x	o	x	x	x	o	x	o	o	o			x	x	x	x	x	x	

재적위원: 36명 / 개요요건: 10단위 이상 출석 / 의결요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참관인 : 4명

※ 총 재석인원 : 16명

※ 지각 : 생자대 부(19:08)

II. 보고 안건

1. 총학생회 보고
2. 단과대학 보고

III. 논의 안건

1. 학내 코로나 방역점검 및 예방 논의
2. 5월 학내 행사에 대한 논의

IV. 기타 안건

II. 보고안건

1. 총학생회 보고

- 4.12(월) 대학본부 3층 대강당 : 부산대-부산교대 MOU 설명회 참가(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사범대회장)
- 4.15(목) 시험기간 간식행사 온라인 진행 ※장전, 밀양, 양산 : 80명, 20명, 20명
- 4.13, 20(화) 제1회 예산편성조정실무위원회 참석(2020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4.23(금) 제1회 재정위원회 참석(2020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4.23~29 상반기 2차 예산자치제 신청
- 4.30(금) 총학생회-학생처 정례회의 예정
- 제2회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5.8(토) 전북대에서 진행 예정
- 추가 학생회비 분배 완료(학과학생회로 분배요망)
- 교양공모전 5월 중 진행 예정
- 온라인 대동제 설문조사 업로드 : 예상 진행날짜 5.10~5.14(5월 2째주)
- 대학본부 주변 도로개선공사(부총학생회장 설명 참고)

의장 : 4월 12일에 부산대학교 공지사항에도 같이 올라갔었는데 대학본부 3층 대강당에서 부산대와 부산교대 MOU 체결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가 되었고 여기에서 저희가 학생회 차원으로 참가한 인원은 저와 부총학생회장님, 사범대 회장님 이렇게 3명이 참가했는데, 이 거랑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뒤에 사범대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와 부산교대, MOU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담당자께서 전체적인 책임자시기도 하셔서, 사범대학교 학장님이기도 하셔서 이것 포함해서 접근성이랑 가장 통합을 하게 된다면 사범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해서 사범대 회장님께서 조금 더 수고해주시고 계셔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 저희가 시험 기간 간식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간식 행사라고 하면 학생회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시험 기간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학우분들이 줄을 서게 되고 과정에 있어서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지킨다고 한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래는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대외연대국에서 제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 기간에 온라인으로 기프티콘 등으로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에 장전 80명, 밀양 양산 각각 20명씩 진행을 했습니다.

19:08 생자대(부) 입장

그리고 저희가 4월 13일에 제1회 예산편성조정실무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때 위원들을 정했었는데 저랑 총학생회 기획재정국장이 참석했는데 2020년도 대학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대학회계라는 게 2016년도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성회비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성원이 수업료 아니라 수업료 2에 해당하는 부분들 기성회비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감사받는 것도 기성회칙에서 진행이 주로 됐었는데 개편이 되고 이후에 변화가 되면서 재정위원회에 학생위원 2명이 참여하여 함께 검토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그리고 검사하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재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보게 되고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 중이지만 참석을 하고 사이사이 기간에 결과, 작년의 경우에는 이월 회계가 딱히 크게 없었습니다.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다행히도 없었고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못하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재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할당되는 항목들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추가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추가로 집행을 마무리까지 못 해서 이월되거나 사고 이월된 회계는 한 건밖에 없었고요, 그 한 건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운동장 뒤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부설 중,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관련된 기관들과 환경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하고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출 내역 중에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지출 내역에서 추가된 부분들이 827억에 해당하는 BTO 관련된 자금이 19년도 때 부산대학교로 교육부에서 넘어왔었고 작년에 지출되어서 결산에 대해서 주요 부분 지출의 증가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회의 이후에 찾아오시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재정위원회에 참석해서 결산안에 대해서 통과가 됐고 현재 23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2차 예산 자치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사업이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총학생회에 일정 수익금을 학우들에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열어두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5인 이상 결성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우분들도 있는 거 같아서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아서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분들이든 아니면 학우분들이든 알려주시면 29일까지 신청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월 30일에 총학생회와 학생처 사이의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정기적으로 만나서 학내 문제점, 불편한 점을 정식으로 건의 드릴 수 있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논의내용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면 교육 혁신처에서 담당자분이 오시게 되고 수강 신청 서버와 관련된 내용이다 하면 정보화본부에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대 내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학과 행정실이나 학과장님 면담을 진행했는데 어떠한 난항을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현실적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해주시면 함께 정례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제 회 전국국공립연합회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1회는 4월 2일 날 부산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때에는 국공립대학교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현안에 대해서 공유했고 본격적으로 5월 8일 전북대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때 저희가 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지 궁금하신 회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크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외부적으로는 국공립대학생연합회라는 기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지가 올해부터 3년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그 이전에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부터 차근차근 정비해가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회장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아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각 국공립대학교가 떨어져 있습니다. 총 19개 국공립대학교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대까지, 물리적 거리가 멀고 각각 총학생회장단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 내부에 상임집행위원회라고 뒤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국공립대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서에는 각 학교별 단대 회장 혹은 부회장들, 국장님이나 집행부들, 아니면 학교 학생 소속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최근에 저희가 권인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학생자치기구를 법에 등록돼서 법으로서 보장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아마 분석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학생자치기구가 법제화가 되는 데에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대학 평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총장직선제에 대해서 학생 반영비율을 높일 때에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법제화가 되게 되면 교육부령을 통해 저희가 제한을 받게 되는데 교육부령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와지게 될지, 어떻게 나와지게 될지에 따라서 학생자치기구가 많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치기구의 이름에 걸맞게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여부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저희가 입장을 표명하거나 얘기할 때 확실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것들을 총학생회장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심과 시간을 뒤서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 상임집행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4월 2일에 지방 50% 할당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정식으로 법안 발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들어가야 하고 저희에게 가끔 의견을 묻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전문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대 회장님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대 회장님들이 하실 수도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상임집행위원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도와주실 수 있는 회장님들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추천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정책 연구를 하는 정책부서가 있고 또 국공련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만날 일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만나고 하며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전략적으로 짚 수 있는 기획부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저에게 말씀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월 8일에 전북대학교에서 진행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학생회비 분배가 완료되었습니다. 학과 학생회로 분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분배를 하셨으면 단과대학 보고 때 함께 보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교양 공모전이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이 완료되고 진행되는 대로 확운위 단독방에 올려서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안건에서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온라인 대동제 설문조사에 대해서 업로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축제를 진행한 게 2년 전이었던 거 같은데 이제 작년 이어서 올해에도 오프라인으로 대동제를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 같고 그렇다고 행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는 거보단 온라인으로도 대동제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고 문화홍보국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 연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설문조사 내부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려놨거든요. 투표 진행 중이고, 아마 예상 진행 날짜는 5월 10일부터 14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5월 둘째 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5월 10일, 11일 정도에 학우분들께 영화를 볼 수 있게 열어드릴 생각이거든요. 단체로 모여서 관람하거나 하는 건 어려울 거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영화관을 빌려둔 게 있어서 이 시간이면 그냥 부산대 학우분들이면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서 열어드릴 생각입니다. 아마 들어가게 되면 자리는 두 칸씩 띄워서 현재 영화관 방역수칙에 맞게 진행될 예정이라서 그렇게 해서 10, 11일 정도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서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대학본부 주변에 정문 주변을 포함해서 도로 개선 공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부총학생회장님과 복지국장님이 관련 회의를 다녀와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집행부들에게도, 학과 회장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문의 일부분이라든지 대학본부 주변을 이용을 못 하실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 저번 주 금요일에 대학본부 주변 도로개선공사라는 이름으로 시설과에서 주관한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사 구간은 지금 보시는 캠퍼스 맵에서 정문이라고 표시된 회색 꼬리표부터 저희가 순환버스를 탔다고 생각했을 때 정문으로 들어와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본부 쪽으로 빠져서 문창회관으로 올라오는 이 도로, s자 도로를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정문 입구에서부터 문창회관 정류장까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부수 공사를 하는 이유를 일단은 전달해드리면 정문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문에 다들 걸어가거나 순버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문 노면이 시작되기 전에 돌로 된 타일이 박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순환 버스나 다른 차량들의 바퀴와의 마찰로 인해 부서진 곳도 많고 좀 균일하지 못하게 기반이 일그러진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보수가 들어가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원래 지하주차장이 저희 학교가 있었던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NC백화점 들어서면서 새로 지은 것인데 지하주차장 입구 부분의 재료와 아스팔트 노면 재료가 서로 다른 재료기 때문에 그 재료 분리로 있어서 지반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수공사를 진행 해야 하고 순환 버스가 정문을 통과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오는 그쪽에 물 빠지는 곳이 있었는데 예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물 빠지는 곳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마다 배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차서 노후화가 된 상황이라 그쪽 보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뒤쪽으로 저희가 항공

관이라고 부른 백화점 시작점부터 문창회관 정류장까지 그쪽에 곡선 커브 길인데 나무데크가 있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무 데크가 있는 지반 아래쪽에 우수박스라고 빗물이 빠지는 길이 이제 박스 형태로 있습니다. 우수박스 공사를 2009년에 시공한 이후에 지반을 제대로 메우지 않아서 흔히 싱크홀이라고 부른 지반 치마 현상이 발생했고 보수공사를 한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지반을 싹 다 걷어낸 다음에 지반을 다지는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공사는 5월 중순에서 말쯤에 시작돼서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5~6개월 정도 보고 있는 공사이고 공사 기간 중에서 정문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공관 뒤쪽부터 문창회관까지, 이 곡선 커브 길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이 공사가 아마 2~3개월 정도 걸릴 거고 정문 쪽을,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문 쪽에 있는 그런 타일들이나 비 빠지는 곳들, 이쪽을 열흘에서 보름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회장님들께서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구간에는 도보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과 당시 회의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정문에서 걸어서 올라오는, 제3공학관과 블루베리 안경점을 통해서 올라오는 계단은 공사 진행 기간과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순환 버스 노선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정문 쪽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파리바게뜨 사거리에서 직진하지 않고 좌회전해서 우체국 쪽으로 빠져서 무지개문 쪽으로 들어오고, 무지개문을 지나서 인문관 앞 지나서 문창회관으로 가서 그 뒷부분부터는 지금과 똑같은 정상적인 노선으로 운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우분들한테 알리는 드릴 건데 일단 각 단위 회장님들께서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사 구간에 나무데크가 깔려 있어요. 이 나무데크가 매년 좀 부실하다, 땅이 꺼질 우려가 있다는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이번에 지반공사를 하면서 데크에 옹벽 설치하고 나무 데크가 아니라 아마 모노 블록으로 다 포장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사가 끝나봐야 아는데 그 부분에 인도도 보수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류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정류장이 배치가 될 건데요, 부산대 정문 정류장과 대학본부 정류장 이 두 개의 위치가 옮겨질 것입니다. 대학 본부 정류장은 인문관 앞쪽으로 옮겨질 거고요, 정문에 있는 정류장은 저희가 파리바게뜨 사거리에서 직진하지 않고 좌회전으로 돌아갈 때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임시로 정류장이 하나 생기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가서 지금 저희가 원조 김해뒷고기 있는 그쪽 구간에 또 하나 정류장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버스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의견 수렴이 4월 29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건 없어서 다른 공대나 다른 기관들의 의견 수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4월 29일에 의견 수렴이 끝나고 최종안이 나오면 그 안 중에서도 학생분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총학생회 SNS 계정 혹은 학우위 통해서 학생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알림으로 생활이나 교통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려 합니다. 그리고 공대가 안 오셨는데 공과대 같은 경우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항공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식 출입구가 있지만, 뒤쪽에 후문이 또 있어요. 지금 대학 본부 정류장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 구간을 공사 기간 동안 절대 사용하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본부나 다른 기관으로 가려면 돌아서 가야 한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공대 회장님이 안 오셔서 나중에 따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요약해드리면 공사가 진행되는 최대 5개월 동안은 흔히 다니고 있는 문창 휘어지는 공간, 사용을 못 하고 정문 쪽에 순환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백화점 옆에 작은 올라가는 공간 있죠, 그 공간은 항상 사용해도 되는데 올라오셔서 오른쪽으로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또 변경되고 오랫동안 변경되는 게 순환 버스 노선인데, 흔히 요 앞에 세워주잖아요. 세워주는 게 왼쪽으로 들어서 카페 051 옆 정류장에 서게 될 것 같고 우체국 쪽을 지나서 김해 뒷고기가 있는 곳에 세워지게 되고 이후로 구정문으로 들어가서 인문관 쪽으로 가서 인문관에 세워지게 될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흔히 이제 새도쪽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정문 쪽이나 이런 데에 울퉁불퉁해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나요?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생기면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고안건은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단과대학 보고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단과대학 보고(가나다 순)

간호대학 학생회	
경영대학 학생회	보고안건 없음.
경제통상대학 학생회	시험기간 이전에 학생회비 추가납부 과별 분배 완료
공과대학 학생회	
나노과학기술대학 학생회	보고안건 없음.
동아리 연합회	학생회관 사용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출입 잠시 허용, 보고 하지 않고 출입할 시에는 각 동아리에게 경고 1회를 부과하는 방식 무단 사용 막으려고 하는 중
사범대학 학생회	4/7 사범대학 사대위키 업로드, 학내 감염자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사범대학 일상복지 사업 일시 중단, 4/9 MOU 설명회 참가 후 최초 브리핑, 4/12 MOU 1차 브리핑, 학생자치활동지원제 신청 받아 2개 단체에 지원금 지급, 4/12 중간고사 간식행사 진행, 토익 응시료 지원 이벤트, 학과 학생회비 분배 완료, 학력지원프로젝트 준비, 단운위 인터뷰 담은 콘텐츠 제작 중, 5/3~5/8 제2차 학생자치활동지원제 신청, 5/4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 관련 설명회, 4/30~5/2 사범대학 학우 대상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관한 설문조사, 5/9 전국사범대학교연합회 회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2차 추가 학생회비 분배 완료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	보고안건 없음.
생활환경대학 학생회	
스포츠과학부 학생회	보고안건 없음.
약학대학 학생회	
예술대학 학생회	4/9~4/12 예술대 집행부 신입부원 모집 완료, 4/13 1차 단운위, 4/15 예술대 예산안 제출 완료, 4/23 전국예술대네트워크 탈퇴, 4/26 예술대 온라인 간식행사 완료, 추가학생회비 분배 완료
인문대학 학생회	4/15 추가학생회비 분배 완료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추가학생회비 분배 완료, 5/24 자연대 출범대 대체 행사 진행 예정
의과대학 학생회	
pre-한의학전문대학원과 정 학생회	
pre-치의학전문대학원과 정 학생회	

Ⅲ. 논의안건

1. 학내 코로나 방역점검 및 예방 논의

의장 : 여러분들께도, 단과와 학과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안건을 올리게 됐냐면 제가 코로나 실무대책위원회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시로 학내나 코로나 상황이 격상되게 되면 회의를 열어달라 요청해서 회의에 들어가서 의견을 얘기하고 상황에 대해서 듣고 오는데요, 저희 학생회 차원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체감하는 거 또한도 학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도 학생이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내에 방역에 구멍이 생기게 없는가 저희 자체로도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거나, 제보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행부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게 생기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 버스 관련해서 탈 때 순환 버스가 생각보다 밀접하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순환 버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든지, 그리고 실제로 1층에 저희가 찍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아무도 안 찍고 안 들어간다, 그래서 찍는 걸 조금 더 경비원분들이나 근로하시는 분들이 앞에 서서 검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단대의 건물에 대해서는 회장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다 보니까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금 이 회의 때 말씀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말씀해주시든 평소에 함께 있는 확운위 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코로나 실무위원회에 건의 드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담당자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지침 준수에 대해서 강화라든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찾고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각 단대에 대한 부분들, 혹은 단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방역이 구멍이 생길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정리해서 저희가 관련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니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다시 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있으시면 회의 때 이 안건을 들고 올라가셔서 수렴해주셨으면 좋겠고 수렴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정기 회의가 아니더라도 됩니다.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중요하고 실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학본부에 들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범대 회장님?

사범 : 논의를 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코로나 시국에 학교를 다니며 들었던 모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역에 구멍이 뚫린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부산대학교 수업 유형이 교수자 재량으로 맡겨지며 다양한 유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면, 원격수업 다 있는데 사실은 혼합되어 있는 자체가 결국에는 방역이 진행이 안 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을 때 대면 수업을 듣고 비대면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갈 곳 없어서 인근 카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인근 카페에 모이게 되면 결국엔 인근의 카페에 모이게 되고 저희가 학생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틈새 학습공간을 만들어달라, 그 의미는 수업 유형이 혼재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결국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원격 수업을 듣기 위해 결국에는 학교를 다시 와야 합니다. 그 자체가 혼재된 상황 속에서 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까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수업을 학교에서는 원격으로 진행하지만, 학교의 다른 공간에서 듣고 있는, 과연 이게 원격수업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업 유형을 담당 교원에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맞지만 정말로 이게 학교의 방역을 지켜야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학교 차원에서 이런 수업 유형을 획일화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장 : 네, 감사합니다. 다른 회장님들께서 이 생각을 아마 항상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이 부분

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 저희가 시험 기간 전에 한번 코로나가 발생이 됐었고 코로나 관련으로 2주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을 했었죠. 전환했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현장에 좀 있었는데 국립대 특성상 원래 이제 있던 권한에서 획일화가 안 됩니다. 저희가 만약 사립대였고 이사장이 있고 그 학장님들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면 획일화가 충분히 가능했고 부산대도 바로 획일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장님도 교수님들이 뽑게 되고, 그리고 원래 그 권한 자체에서도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권한을 제할 수가 없는 것이 국공립대학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찾아보고 연구를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도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획일화를 명명할 수가 없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었고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최선의 상황이 될까, 그렇다고 이 국공립대를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법을 바꾸자는 거는 현실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건 아마 국립대라는 특성상, 사립대는 어떻게 보면 이사회로 구성이 되고 재단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오더가 가능합니다. 국공립대는 불이익을 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 만약 이것들이 정말 획일화가 가능하다 하면 이제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서 획일화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현 교육부 지침상 혼합 수업과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서 교수님들께 획일화에 대한 오더가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후에 가능한 게 권고입니다. 사실 그 권고를 보통 들어가 정상인데 권고 수준만 돼도 지금 우리 교수님들 다 따르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본부를 지침을 권고 형태로 항상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침 권고로 했으면 웬만한 교수님들은 다 따랐을 것인데 그 이후에 소수 교수님들이 안 따르는 것은 사실 이제 부산대 학내에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안 따른다고 해서 질타 정도를 할 수 있겠는데 교수님들이 안 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본부 차원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 속에서 저희 학생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가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대학 본부 차원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셔야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요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 본부 처장님이 가셔서 혹시 이 교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 안된다, 어렵다고 해서 그 속에서 저희가 교육정책국과 가서 요청했던 게 수업 모니터링과 함께 협의하기 위해 요청했던 게 그렇다고 해서 권고나 이런 것들을 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직접 공식적으로 잘못될 건 잘못된 거고 권고를 안 따르면 안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정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겠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은 공식적인 문서니까 보냈을 때도 교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최대한 그런 소수의 교수님, 생각보다 부산대가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정도라 많이 소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 국공립대학교는 특히 교수님들 권한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교수님들 이외에는 이런 권고나 조치들, 혼합 유형이 선택되었을 때 심해지면 부디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렸고 이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논의하는 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도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학우분들의 불만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갈 곳 부재와 관련한 부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지만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주제를 들고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틈새 학습공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이 틈새 학습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겁니다. 아마 대학본부 차원에서 제가 요청을 많이 드려서 틈새 학습공간을 단대 차원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카페에 가면 우리 학우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요구를 아마 대학본부 차원에서는 틈새 학습공간으로 풀려는 것 같습니다.

예술 : 갈 곳 부재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인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예술대는 실기 수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는 수업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실기실, 연습실 사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과제나 연습해야 할 양이 많은데 6시 이후로는 출입 불가하니까 원래는 야작이나 밤에 학교 설을 많이 이용을 했다면 이제 실기실 같은 경우는 못 쓰고 아니면 음대 같은 경우 연습실은 사비로 전부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실기 수업이다 보니 웬만한 전공 수업은 전부 대면이 많은데 여기서 갈 곳 부재가 수업을 들을 때는 마스크를 잘 끼고 간격 유지를 한다고 하면 간격 유지도 하겠지만 이제 예술

대 특성상 700번대 제일 꼭대기에 있다 보니 밥이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학생 회관을 가서 먹는다고 하면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고 그렇다고 밥을 정문 쪽에 가서 먹고 올라올 시간이 없어서 배달 음식은 안 되는데 출입을 못 하게 하니 길바닥에서 먹는다는가, 그런 식으로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실기 수업 대면은 해야 하는데 이제 방역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면을 하는 이상 이 부분이 제일 학우분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장 :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기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학우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전면 비대면을 시작했을 때 실험, 실습수업이 90% 이상인 예술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식사 관련해서 6시 이후 현재 모든 예대가 출입이 안 되나요?

예술 :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 그러면 이후에 대한 과제나 이런 것들은 밖에서 하든 사비로 충당을 한다는 거죠?

예술 : 네. 아니면 아침에 오거나 합니다.

의장 : 이 부분 관련해서 식사하게 되면 시켜 먹어야 하는데 문이 잠겨있다, 평소에도 안되니까?

예술 : 네, 평소에도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회 입장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교수님들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 그럼 그 속에서 대체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예술 : 아니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요청해주시고요, 논의 자체를 안 받아주시면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정례회의 차원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한번 요청을 해주셔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현재 애매하게 봉 뜯은 상태에서 예대 학우분들은 계속 고통을 받으실 것 같아서 따로 알려주십시오. 사범대 회장님도 질문 있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알려주십시오. 코로나 관련이 아니거나 하면 그다음 정기회의 때 이것들을 말씀해주시고 들으면 되는데 사실 상황이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이전 상황과 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다음 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회의 때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 모든 것들을 논의했다고 하면 사실 상황이 많이 변했고 온라인이라는 회의가 도입되고 하면서 사실 실시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회의에 국한되지 마시고 평소에도 따로 저희 방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고 부총학생회장님이나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잘 저를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고 하면 방역 점검이나 예방에 대한 부분도 저희 학생회 차원에서도 계속 학교에 다니니까 학우분들에게 전해 들으니까 집행부들을 통해 받는 대로 지금처럼 계속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제가 바로 학생 처장님께 전화가 가능하거든요. 정말 긴급하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혹시 더 있습니까? 네, 예대 회장님.

예술 : 조금 사소한 구멍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희 건물 출입할 때 큐알코드나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수업하는 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전부 다 하게 해서 입장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게 굳이 큐알이랑 수기 두 개 다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만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킴이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로하시는 분들이 지키면서 이걸 쓰고 가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데 없는 공간도 따로 있고 약간 근로 분들이 하시는 거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출입 장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 혹시 지금 현재 예대는 큐알도 찍고 적기도 해야 하나요?

예술 : 네, 건물마다 다 전부 다르게 하는 중입니다.

의장 : 다른 거 같은 게 사실 그 건물 책임자는 학장님으로 명시가 되어서 학과 행정실에서 보통 합니다.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많이 뭉쳐있을 수밖에 없는 건물이다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강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나,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는데 학생처 측에서 조금 개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가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한데 듣게 되면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피드백을 해서 다른 점에서 뚫릴 만한 점이 있으면 전달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사범대 회장님.

사범 : 수기 명부 해서 생각이 난 부분인데 이게 사실 수기 명부도 어떻게 보면 모순적일 수가 있는데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해 작성하지만, 그 볼펜 하나를 놓고 그 강의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이 만지고 작성하고 하는, 되게 방역을 위한 행동이지만 뭔가 방역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 학공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대학에 보니까 강의실별 명단을 작성할 때는 강의실별로 큐알코드가 하나씩 있는데 그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그 출입자 명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건물 출입구에서 하는 그런 스캔 말고 큐알 코드가 있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 수기 명부 작성에 걸리는 대기 시간도 줄이고 같은 볼펜을 사용하는 위험성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의장 : 애초에 큐알코드를 붙여놓는 방식인 거죠? 수기 명부가 사실 재학생들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외부인들이 쓰라고 놔둔 것이라고 하는데 학생분들은 앱에 다 있으니까. 원래 그거 찍는 건데,

사범 : 그런데 강의실에는 수기 명부를 반드시 작성하다 보니까.....

의장 : 그렇죠, 강의실에는 수기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잖아요. 그거 되게 괜찮네요. 혹시 어디 학교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범 : 제가 알게 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 네, 알려주십시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 이거 다 수기 명부 작성한다고 시험을 늦게 쳤거든요. 그러면 사실 큐알 찍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음식점에 가면 전화번호처럼 다 되던데 그런 방식을 도입하든, 이것을 생각보다 오히려 밖이 더 잘 되는 부분이 있네요.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나노 : 방금 말씀처럼 큐알을 붙여 놓는 방식이 사실 저희 나노대학교 시험 기간에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영관에서 주로 시험이 있는데 경영관 출입문 앞에 큐알 코드가 놓여 있고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스캔이 되면 학생과에서 작성한 구글폼 형식으로 넘어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과목 시험을 치고 어떤 자리에 앉았고 발열이나 이상이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걸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해보면서 느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영관 출입을 할 때 애초에 큐알을 찍는 거랑 명부 작성하는 것을 거친 다음에 강의실에 가서 하는 건데 이게 학생들에게 계속 문자가 가고 큐알 코드를 스캔해서 구글폼으로 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니 작성해달란 요청이 있었음에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인 거 같은데 이것을 학우분들이 잘 쓸 수 있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 경영관 문 앞에 붙여져 있나요?

나노 : 네, 시험 강의실 예를 들어 109호다 하면 109호 앞에 카메라로 스캔할 수 있게 큐알 코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의장 : 아니면 스티커면은 우리 강의실 가면 이 자리 비워달라고 종이 붙어 있죠. 그 위에다가 붙여버리면 안 될까요? 자리별로. 자리는 어차피 앉을 테니까 조교님이나 교수님이 큐알코드 스캔하라고 하면 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범 : 든 생각이 있는데 아까 나노대회장님께서 구글독스로 넘어가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이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사실 구글 독스를 쓰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다 보니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정보화본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스마트 캠퍼스 앱을 조금 개편을 해서 큐알코드 스캔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고 아까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처럼 좌석별로 기입해야 하는 거라면 좌석별로 큐알코드를 부착해두고 스마트 캠퍼스 앱에서 스캔하면 바로 본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추가로 독스 작성할 필요 없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좌석 번호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차피 좌석이나 좌석 가까운 걸 가지고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지 않는다면 같은 강의실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접촉자로 분류가 되는 거라면 강의실 입구에다가 스캔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카메라로 스캔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정보가 들

어 있는 스마트캠퍼스 앱으로 바로 스캔하며 지나가는 시스템이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의장 :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복잡할 것 같네요. 일단 이것도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사범(부) : 저도 그냥 큐알 관련해서 되게 사소한 의견인데요. 들어갈 때 찍는 큐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안 찍고 들어가는 게 앱 커서 화면 들어가는 게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앱 개발 업데이트를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위젯 같은 거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의견 말씀드려 봅니다.

의장 : 이 부분은 위젯이면 큐알코드가 바탕화면에 바로 뜨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의견 있으십니까? 이후에도 생각나시거나 하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 의견들을 전달해드리고 혹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번 안건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5월 학내 행사에 대한 논의

의장 :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까지 우울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국에서도 문화 담당 부서가 있는 만큼 이 부서에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우분들께서 어떻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서 학교생활에도 만족감을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5월에는 축제의 달이라고 할 정도로 축제가 항상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대규모 축제는 안타깝게도 할 수가 없는 실적인데 그 속에서도 저희가 행사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거 같아서 2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학생회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했던 대동제를 이제 저희가 따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는 할 수 없으니까 저 예산으로 나름 아이디어 적으로 진행하려고 온라인 대동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각 단대 차원에서도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 기획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실 텐데 만약에 안 하고 계시면 그래도 한번 기획해달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논의에 대해 올라오는 이유는 저희가 학과, 단대, 총학생회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 행사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 각 학생회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생각해보자 하시고 수렴해주셔서 다음 회의 때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들고 올 테니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거나 하는 행사가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논의안건을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진행 중인데 옆에 문화홍보 국장님이 안 계셔서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오늘 오전 중에 듣기로는 생각보다 많은 학우분들이 하루도 안 됐는데 500명 정도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대 대항전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카카오톡 스냅 게임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별도로 앱을 안 깔아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카카오톡방별 대항전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단대, 아니면 한컴 타자를 단대별로 대항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안건을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화요일, 회의 되기 전까지 한번 이런 것들을 논의해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지금 제시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 회장님들 계신가요? 온라인 대동제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설문조사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또 올려주시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안건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V. 기타안건

1. 다음 확운위에서 논의할 사항

- 추가하시고 싶은 사항?

의장 : 저희가 마스크 배부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배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학내에 도서관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속에서 실험, 실습이나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총학생회는 길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직접 마스크를 배부해 드릴까 하는데 혹시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단대 차원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드릴 테니까 단대 건물 내에는 저희가 안 들어갈 거거든요. 저희가 다 들어갈 수 없어서 단대 회장님들이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드릴 테니까 단대 차원에서도 학과 수업 끝날 시간에 마치는 분들 계시면 나올 때 앞에서 마스크 배부해서 방역 수칙에 대해서 준수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로도 설명해 드리고, 단대 학생회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다 모르실 거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도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대 회장님들께 드리면 단대 회장님들은 학과 회장님께 드리고 학과 학생회 차원에서도 학과 학우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면서 전달사항이나 이런 것들 준수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단대 회장님들께 드릴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회장님들께서도 집행부들과 함께 각 건물들 있죠, 건물들의 학우분들께 나눠주시고 집행부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움직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주문할 테니까 한번 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늘 회의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정 되는대로, 수령하는대로 드릴 테니까 저희 회장님들 중에서 혹시 문창회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총학생회실 2층에 둘 테니까 수령하게 됐다고 알려드리면 총학생회실로 찾아오셔서 할당되는 개수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하고 따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하는 부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14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